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

2019.10.10.(목) 14:00
금융위원회 14층
제2중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2019. 10. 10.(목)

금 용 위 원 회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우선,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경제상황은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일본의 수출규제 등 여파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EU 등 선진국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비하여 완화적 통화정책을 재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국내 시장금리는 정책금리와 함께 크게 하락하였으며 향후에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거란 의견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저금리 환경이 보험사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Ⅱ. 시장금리가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지난해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분야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의 시행시기를

2022년으로 1년간 유예하였습니다.

이는 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시행시점에 과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 시가평가법은 보험부채를 현재 시장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종전 ‘역사적 이자율’로 할인하는 원가평가법과는 상이한 제도임

그러나 그 이후에도 국내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국고채금리가 역사적
최저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보험부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자본확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11년부터 IFRS17의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단계적 자본확충이 가능하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하락과
이로 인한 책임준비금의 확대는
보험회사의 과도한 당기손익*악화라는
재무적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 현행 회계기준은 LAT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하
도록 함에 따라 금년말 책임준비금이 증가하면 보험회사의 당기
손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정부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에 따른 보험회사의 과도한 당기손실 확대를 방지하되,

2022년 시행될 IFRS17에 대비하여 자본확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계 및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합니다.

Ⅲ. 제도개선사항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개선 >

정부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개선하여 금년말 보험회사의 당기손실 확대가능성을 낮추려고 합니다.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당기손실의 확대로 연결되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문제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강화될 예정이었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IFRS17 시행일정에 맞춰 1년 연기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금리하락에 따른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시장금리의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할 경우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예) 무위험수익률 산출방식의 변경 등

<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

이와 같은 LAT제도개선으로 인해 줄어든
책임준비금은 가칭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하여
보완하려고 합니다.

즉 신설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달리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자본항목내에서의 조정이란 점에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자본확충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란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IV. 마무리 말씀

현재 국내 보험산업은 IFRS17 시행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안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의 둔화,
인구고령화, 저금리의 장기화로 인한 이차역마진 등
수많은 다른 과제에 의해서도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우리 보험산업이 충실하게 대응하여 극복한다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IFRS17 시행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업계 및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정책수립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